

Art



아트인컬처
August 2014

Special Feature /
Jeff Koons
창조와 파괴의 마술사

Abroad /
제8회 베를린비엔날레
베니스 건축전 리포트

박서보의 '생애'에서 한국 현대미술사를 찾다

《Park Seobo: from Avant-Garde to Ecriture》 출간

한국의 현대미술사를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영문 신간이 출간됐다. 싱가포르에서 평론가 및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케이트 림(한국명 임연기)의 《Park Seobo: from Avant-Garde to Ecriture》. 한국 현대미술가 개인에 대해서는 영어로 처음 출판된 작가 전기(傳記)다. 해외에 한국 작가에 관련된 '이론 위주'의 비평적 논문은 많은데 "예술가 개인의 총체적 삶을 관찰한 책은 왜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박서보 생애를 통틀어 그가 예술적 자아를 형성하고 성숙시켜 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작가를 둘러싼 객관적 기록에 저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해 작가의 삶을 밀도 있게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는 약 1년간 10여 차례 싱가포르와 서울을 오가며 작가를 인터뷰하고, 그의 방대한 자료집과 수백여 통의 서신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김용대 김창열 박승숙 오광수 이강소 이우환 등 한국 현대미술사의 대표적 작가 및 미술계 인사들과 나눈 인터뷰를 활용해 객관적인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신문 등에 실렸던 주요 평론들을 번역해 인용하고 있다.

책은 박서보의 출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부모님 이야기, 전쟁의 경험, 친구들과의 에피소드, 구애와 결혼 등 삶의 이야기들을 펼쳐 놓는다. 함께 실린 작가의 미공개 일상 사진이 눈길을 끈다. 작가의 사생활을 상세히 표현한 데 대해 저자는 "작가의 미술 언어가 확립되기 전의 경험을 아는 것이 향후 펼칠 작품 세계를 창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책에는 작가가 인생의 각 시기마다 예술가로서 펼친 활동도 충실히 나타나 있다. 1956년 '반(反)국전' 선언에서부터 1957년 '현대미협' 결성과 작가 데뷔, 1970년대 초 묘법 기법, 1970~80년대의 한국미술협회 활동 주도,



《Park Seobo: from Avant-Garde to Ecriture》(케이트 림, 싱가포르 북스액추얼리, 2014) 저자 케이트림(Kate Lim)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출판 프로젝트 회사 'Arte en Fide'를 운영하며 한국 작가 평론 번역 및 집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와 현재의 작품 활동까지 망라한다. 작품 도판뿐 아니라 스케치, 작업 과정 중인 작가 사진도 수록해 작품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저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박서보의 "한 가지에 '필'이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추진하는 열정"을 느꼈다고 한다. 책에서도 그의 예술적 성취를 묘사하는 동시에, 그의 야심과 좌절 같은 인간적 면모까지 생생히 표현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서보의 성격적인 공통점을 비교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작가의 국전 거부, 미술협회를 통한 국제전시 개최와 비교하며, 두 인물 모두 무조건 칭송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서보의 영문 전기 출간의 의의는 비단 작가 한 명의 재조명에 그치지 않는다. 박서보의 삶을 둘러싼 한국적 정황이 한국 현대미술사의 형성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 1세대 작가'이자 한국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후 현대미술사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앞으로도 한국 작가 영문 전기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음각과 양각을 뒤바꾼 '역상조각'을 구사하는 작가 이용덕의 전기를 집필 중이다. / 채연 기자



왼쪽부터 · 1961년 당시 거주하던 마담 몽티유의 다락에서 / 1959년 부인 윤명숙의 머리를 감겨 주는 박서보 / 1961년 유네스코 〈영아티스트 컨퍼런스〉 참여 작가들과 빈센트 반 고흐의 무덤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박서보(왼쪽 위)

